

선지서 해석

저자: 리차드 프랫 2 세 (Th.D., Harvard)

역자: 이창배 (Ph.D., UCLA)

번역 후원: Ankur Lee-Vakil (Son-in-law)

제 1 강

기본적인 해석학적 관점들



THIRD MILLENNIUM

MINISTRIES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2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NEW INTERNATIONAL VERSION. Copyright © 1973, 1978, 1984, 2011 International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of Zondervan Bible Publishers.

ABOUT THIRD MILLENNIUM MINISTRIES

Founded in 1997,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 Millennium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

역자 서문

삼천년기 사역은 성경에 충실한 기독교 교육을 전세계를 향해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국에서 훈련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돕고 있다. 삼천년기 사역은 제이니 필로우(Janie Pillow)와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박사에 의해 1997 년에 시작되었다. 삼천년기 사역은 영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5 개 언어(세계 인구의 총 42 퍼센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인도네시아어, 힌디어, 루마니아어, 프랑스어, 페르시아어, 그리스어, 암하라어, 텔루구어 등)은 삼천년기 사역자의 감수 아래 각 언어의 자원자들이 번역하여 올린 것이다.

본 강좌는 **선지서 해석**으로 총 8 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강은 **기본적인 해석학적 관점들**을 살피기 위해 성경의 선지서를 믿을 만하게 다루기 위해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는 해석학적 고려 사항들을 공부한다. 먼저 선지서에 대한 우리의 혼동을 설명하고, 혼동 극복을 위한 세 가지 주제로 선지자의 체험, 원래의 의미의 중요성, 선지서에 대한 신약의 관점들을 다룬다. 제 2 강은 **선지자의 임무**를 탐구하며 선지자의 직명(선지자, 선견자, 파수꾼, 사자, 하나님의 사람)을 설명하고, 전왕정기와 왕정기와 포로기와 후포로기에서 일어난 선지자들의 임무의 변천을 다루고, 언약적 모델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기대하신 일, 곧 선지자의 임무의 성격을 논의한다. 제 3 강은 **언약의 사람들**을 다루며 선지자들이 언약의 사람들을 이해했던 방식과 관련된 주제들을 논의한다. 선지자들의 사역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우주적 언약(아담, 노아 언약)의 핵심적인 관심사와 이에 대한 반영, 민족적 언약(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 안의 이스라엘에 대한 핵심적인 관심사와 이에 대한 반영, 민족적 언약을 통해 주어진 약속이 실현된 새 언약의 날에 대한 갈망 등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언약 공동체 안의 구원을 살피며 언약 밖에 있는 사람, 언약 안에 있는 불신자, 언약 안에 있는 참된 신자 등 세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제 4 강은 선지자들이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탐구한다. 먼저 언약의 이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은택과 인간의 책임에 대하여 살피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언약의 심판(작은 심판에서 국외 추방까지)을 경고할 뿐만 아니라 언약의 복(작은 복에서 대회복까지)을 선포했는지 논의한다. 제 5 강은 **선지서의 역사적 분석**을 다룬다. 선지서 이해의 필수적인 맥락을 제공하는 구약 역사적 시대를 네 시대로 나누고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들과 선지자들의 사역을 요약 설명한다. 왕정 초기는 통일 왕국이 분열되고 주로 활동 선지자들이 사역했다. 앗수르의 심판 시기는 아람-이스라엘 동맹, 사마리아 함락, 산헤립 침공 등이 주요 사건이고, 요나,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훔, 이사야 등이 사역했다. 바벨론의 심판 시기는 1-3 차 바벨론 침입이 있었고, 예레미야, 스바냐, 요엘, 오바다, 하박국, 에스겔, 다니엘 등이 사역했다. 회복 시기는 본토 귀환, 성전 재건, 만연한 배교 등이 주요 사건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이 사역했다. 제 6 강은 **선지서의 문학적 분석**으로 선지자들에 대한 역사적 내러티브의 유형(전기, 자서전)과 내용(소명, 상징적 행위, 환상, 역사적 배경),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탄식과 찬양), 그리고 백성과의 의사소통(선지자들이 선포한 심판 선언, 복 선언, 혼합된 선언)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한다. 제 7 강은 **예언의 목적**을 다루며 선지자들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불변성과 섭리), 예언과 속발 사건의 연관성, 예언(조건적, 무조건적, 확증된, 맹세한 예언)의 확실성을 어떻게 이해하며 사역했는지 논의하고 예언의 목표가 미래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이 미래를 만들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제 8 강은 **발전하는 종말론**으로 종말론에 관한 선지자들의 비전이 예언 사역의 다양한 단계를 통해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한다. 먼저 모세의 종말론(국외추방, 회개와 용서, 본토귀환)을 다루고, 이어서 이른 선지자들의 종말론(왕권, 성전, 이방인들 등 주제 추가)과 늦은 선지자들의 종말론(예레미야의 칠십년 포로, 다니엘의 칠십 이레, 최종 전망)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신약의 종말론(복음, 나라, 말세라는 용어; 하나님 나라의 개시-지속-완성이란 구조; 추방과 회복의 주제)을 다룬다.

이 **선지서 해석** 강좌를 통하여 선지자들의 동기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선지서 본문의 바른 해석을 통해 원래 의미를 찾아 오늘의 삶에 바르게 적용하며 교회를 굳건히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줄 선지서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양질의 원강의들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자나 탈자가 있으면 지적해 주기 바라고 번역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란다. 이 수준 높은 신학 강좌들의 원본 동영상은 한국어 더빙을 통해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한국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번역, 편집, 더빙 등 한국어와 관련된 사역에 자원해 동참하고 싶은 사람은 역자의 이메일 hesedlee@gmail.com 으로 연락주기 바란다.

이번 **선지서 해석** 강좌의 번역은 역자의 사랑하는 사위 Ankur Vijay Lee-Vakil 의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사위 Ankur 는 인도 사람으로 역자의 딸(Debby)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하여 샌프란시스코 Union City 에 있는 PCA 소속 Risen Church 를 섬기고 있고, 가족으로 아내 Debby 와 아들 Bex, 부모님 Vijay 와 Amita, 그리고 형 Bijal 이 있다. 아들같은 사위 Ankur 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선지서 해석

제 1 강 기본적인 해석학적 관점들

목차(Contents)

I. 서론(Introduction).....	1
II. 우리의 혼동(Our Confusion)	2
A. 혼동의 원인들(Sources of Confusion)	2
1. 선지서(Prophetic Books)	2
2. 교회(The Church)	3
B. 혼동의 결과들(Results of Confusion)	3
1. 속임(Victimization)	3
2. 냉담(Apathy)	4
III. 선지자의 체험(Prophet's Experience).....	6
A. 정신 상태(Mental State)	6
B. 영감(Inspiration)	7
1. 기계적 영감(Mechanical Inspiration)	7
2.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	7
C. 이해력(Comprehension)	7
IV.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9
A. 통속적 석의(Popular Exegesis)	9
1. 개체적(個體的 Atomistic)	9
2. 무역사적(無歷史的 Ahistorical)	10
B. 바른 석의(Proper Exegesis)	10
1. 문학적 맥락(Literary Context)	11
2.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	11
V. 신약의 관점들(New Testament Perspectives)	12

A. 권위(Authority)	13
1. 선지서(Prophetic Scriptures)	13
2. 선지서의 의도들(Prophetic Intentions)	13
B. 적용(Application)	15
1. 예언의 기대들(Prophetic Expectations)	15
2. 예언의 성취들(Prophetic Fulfillments)	15
VI. 결론(Conclusion)	17

선지서 해석(He Gave Us Prophets)

제 1 강 기본적인 해석학적 관점들

(Essential Hermeneutical Perspectives)

I. 서론(INTRODUCTION)

언젠가 나에게 “리차드, 자네가 큰 교회를 원한다면, 자네는 성경 예언 모임을 열고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될 걸세.”라고 말한 친구가 있다. 기독교 서점들과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나는 그가 옳다고 확신한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에 호기심을 갖고 있다. 그것은 옛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해준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예언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다른 종말적 사건들만 생각한다. 많은 교파들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선지서의 모든 페이지에서 이러한 주제들을 찾도록 격려한다. 우리의 마음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러한 주제들을 향하여 달려갈지라도, 이번 강좌에서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스스로 취한 접근법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에 대하여 훨씬 더 차분한 접근을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선지자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번 강의의 제목은 “기본적인 해석학적 관점들”이다. 이렇게 명명한 것은 성경의 선지서를 믿을 만하게 다루려면 우리 모두가 반드시 파악해야만 하는 해석학적 고려 사항들을 공부하기 때문이다. 이 첫 번째 강의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부분은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우리의 혼동을 다룬다. 나머지 세 부분은 이러한 혼동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세 가지 주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둘째 부분은 선지자의 체험을 다루고, 셋째 부분은 원래의 의미를 찾는 일의 중요성을 다루고, 마지막 넷째 부분은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신약의 관점들을 다룬다. 그럼 먼저 우리의 혼동을 살펴보자.

II. 우리의 혼동(OUR CONFUSION)

여러분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에 주목해 본 적이 있는가? 구약에서 모세 오경의 이야기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독자들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를 잘 알게 되는 자리에 이른다. 그리고 일부 신자들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와 역대기와 같은 책들에 대해서도 많이 아는 자리에까지 이른다. 그러나 누군가 "이사야서는 어떤 책인가?", 혹은 "스바냐서는 어떤 책인가?", 혹은 "학개서는 스틸 만점의 책이지 않는가?"라고 물으면, 우리는 곧바로 말문이 막혀 버린다. 왜냐하면 이러한 책들에 대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목회자들과 기독교인 교사들조차도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왜냐하면 그들도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혼동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질 것이다. 첫째, 우리의 혼동의 원인들은 무엇인가? 둘째, 이런 혼동의 결과들은 무엇인가? 그럼 먼저 우리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서에 대하여 느끼는 혼동의 원인들을 살펴보자.

A. 혼동의 원인들(SOURCES OF CONFUSION)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선지서에 어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최소한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선지서들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이고, 둘째는 교회 안의 해석의 불일치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1. 선지서(Prophetic Books)

솔직히 말하면, 성경에 수록된 선지서는 아마도 성경의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선지자들의 이름은 발음하는 것조차 어렵고, 더구나 그들이 말한 것은 훨씬 더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자주 선지서의 내용으로 인해 당황한다. 그것들은 종잡을 수 없고, 한 절이 다음 절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수수께끼와 알아맞히기 문제를 내듯이 말하는 것 같으며, 때때로 그들의 말은 우리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는 기록 선지자들의 시대 배경을 제공하는 역사적 사건들도 잘 알지 못한다. 왕들, 나라들, 그리고 전쟁들과 다른 사건들이 너무 복잡해서 우리는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마치 그들이 아주 이상한 이국땅에 들어온 것처럼 느낀다. 도로 표지판들이 이해되지 않는다. 관습들이 기괴하다. 그래서 우리는 선지서 자체가 주는 이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어리둥절하며 방황한다.

2. 교회(The Church)

우리의 혼동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은 교회이다. 기독교회는 매우 많은 분야에서 가르침의 놀라운 일치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서 해석의 문제에 이르면, 교회에는 전혀 조화가 없으며 의견 차이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은 이런 토론들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천년적 세대주의자입니까? 당신은 환난 전 휴거, 혹은 환난 중 휴거, 혹은 환난 후 휴거를 믿습니까? 후천년주의자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가 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비관적인 무천년주의자입니까 아니면 낙관적인 무천년주의자입니까?” 우리는 한 교단에 가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듣는다. 그런 다음 우리가 다른 그룹으로 가면 정반대의 소리를 듣는다. 비록 복음주의자들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선지서에 관해서는 그들 사이에 어떤 합의도 거의 없다. 이렇게 교회는 선지서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너무 분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이 선지서 본문을 대하기란 쉽지 않다.

B. 혼동의 결과들(RESULTS OF CONFUSION)

우리가 느끼는 이러한 깊은 혼동으로 인해 몇 가지 유감스러운 결과들이 생긴다. 내가 고려하는 바 선지서에 대한 우리의 혼동으로 인해 빚어지는 적어도 두 가지 주된 결과는 속임과 냉담이다.

1. 속임(Victimization)

속임은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난다. 매우 많은 불일치와 혼동이 있기 때문에 소위 “예언 전문가들”이 일어나 혼동을 잠재우려고 한다. 그들은 돌아다니며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틀림없는 것처럼 그들의 견해를 가르침으로써 혼동을 제거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속임의 여러 가지 예들이 내 마음에 떠오른다. 근래의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책들과 교사들은 1948 년의 이스라엘 정부 수립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마지막 세대의 표시라고 말해 왔다. 그리스도가 1948 년 이후 한 세대(40 년) 안에 재림할 것이라고 널리 가르쳐지곤 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고국으로 돌아온 후 오직 한 세대 곧 성경이 말하는 바 40 년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의 교회를 위해 재림할 것이다.”라고 말해지곤 했다.

그런데 40 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1988 년이 지나면 그러한 추측들이 그칠 것으로 희망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해들이 지나가면서 예언 전문가들은 그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들은 2000 년이 되면 우리가 종말에 들어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다. 잡지들과 타블로이드판 신문들조차도 우리에게 종말이 곧 닥쳐올 것이고, 모든 창조들이 종말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현재의 사건, 모든 전쟁, 모든 지진, 모든 경제적 곤란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이 곧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러한 예언 모임들의 대다수가 실질적인 적용으로 제시하는 것은 “나의 책들을 사라,” “나의 사역에 기부하라.”는 것이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소위 전문가들에 의해 기독교인들이 쉽게 속임을 당한다. 우리 스스로 선지자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한 해석에서 또 다른 해석으로 옮겨다닌다.

2. 냉담(Apathy)

지금까지 다른 속임은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우리의 혼동으로 인한 한 가지 결과에 불과하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결과가 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약 선지서를 이해하는 일에 냉담해진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선지서를 접근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것 같다. 처음에는 많은 열정으로 시작한다. 그들은 누군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서 모임에 참석도 하고 선지서에 관한 책들도 읽으면서 많은 흥미를 느낀다. 그러나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이 알듯이, 이러한 신자들은 그들의 교사들이 사실 무근으로 판명되는 일들을 말했기 때문에 스스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깨닫는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을 한 기독교인들은 커다란 냉담으로 마감한다. 그들은 선지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해 버린다.

그것이 내가 고등학교 학생이었을 때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나는 생짜 초신자이었고 나의 모든 선생들은 “리차드, 예수님께서 아주 곧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대학에 가려는 생각마저도 포기했다. 다행하게도, 나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매우 빨리 깨달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위한 삶을 이루어 갔다. 그러나 나는 구약의 선지서에 대하여 매우 냉담해졌다. 나는 속으로 “성경의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다른 부분만 다루면 돼.”라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것이지만, 가는 곳마다 나는 구약의 선지서에 대해 냉담한 기독교인들을 만난다.

나는 오늘의 많은 신자들도 구약의 선지서에 대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실망에 지치고 속임당하는 것에 신물이 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기해 버린다. 내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로부터 “선지서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여러분은 그것을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말을 들었는지 말해 줄 수 없을 정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 부분에 대하여 잊어버린다.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을 바꿀 때가 되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에 대해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교리의 모든 빈 말”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선지서를 포함시키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도록 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서를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수많은 면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서에 대하여 무지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나는 우리 모두가 구약 선지서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구약 선지서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를 늘리기 위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일들을 이해해야 하는가? 속임과 냉담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는 적어도 세 가지다. 첫째로, 우리는 선지자의 체험의 성격을 배울 필요가 있다. 둘째로, 우리는 선지서들의 원래 의미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셋째로, 우리는 신약이 구약의 선지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매우

중요하므로 이번 강의를 통하여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 첫 강의에서는 몇 가지 예비적인 고찰만 소개할 것이다.

III. 선지자의 체험(PROPHET'S EXPERIENCE)

그럼 먼저 구약 선지자의 체험을 살펴보자.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를 좀 더 믿을 만하게 다루기를 원한다면 선지자들의 체험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무엇을 체험했는가? 사람들이 선지자들에 관해 이야기한 것을 읽거나 들어보면, 선지자들의 체험에 관한 적어도 세 가지의 오해가 전면에서 드러난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선지자들의 정신 상태를 오해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을 영감하신 방식들을 오해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주 구약 선지자들이 그들 자신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곧 그들의 이해력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

A. 정신 상태(MENTAL STATE)

첫째로,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 실제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으로 여긴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압도된 나머지 그들의 의식을 잃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가나안의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고대 및 현대 세계의 다른 종교의 선지자들처럼 열광적인 흥분 상태에 돌입했다고 간주한다.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관점이 널리 퍼져 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의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내 생각으로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이 그들이 본 것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에 놀라던 때가 있었다고 확신할 수 있다. 에스겔 8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털 한 모숨을 잡고서 그를 들어 올려 바벨론으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옮기실 때 그가 어떤 정신 상태로 있었는지는 그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조차도 에스겔이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그의 정신을 잃지 않았다. 에스겔서의 이 부분을 읽을 때, 오히려 우리는 에스겔이 하나님과 이성적으로 대화하고 행동할 수 있었음을 본다. 극적인 상황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실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식이 뚜렷한 상태로 있었다.

B. 영감(INSPIRATION)

선지자의 체험에 대하여 널리 퍼져있는 두 번째 오해는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감을 받은 방식과 관련이 있다.

1. 기계적 영감(Mechanical Inspiration)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계적으로 영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을 대한다. 우리는 선지자들을 구술대로 받아쓰는 기계들이었던 것처럼 여긴다. 이런 기계적 영감설에 의하면, 이사야는 말을 할 때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움직이시도록 허락했을 뿐이다. 기계적 영감설을 따른다면, 아모스가 설교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모든 말이 나오도록 강요하셨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주 그들을 계시의 수동적인 도구, 곧 하나님의 기계적인 대변자에 불과한 것으로 여긴다.

2.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

영감을 보는 이러한 통속적인 방식과 달리, 우리는 "유기적 영감"이라고 부르는 견해를 가지고 이번 강의들을 진행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의 글을 영감하셔서 오류가 전혀 없도록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하실 때 그분이 인간 저자들의 개성들과 사상들과 관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다. 바울의 서신들은 그의 개성과 그의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사 복음서들의 차이점들이 주로 인간 저자들의 의도와 목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영감하시면서 그들의 개성들과 체험들과 의도들을 사용하셨다. 구약의 선지서를 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의 체험의 기계적인 이해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사고하는 인간으로서의 선지자들을 영감하셨던 방식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C. 이해력(COMPREHENSION)

선지자들의 체험에 대한 우리의 다른 오해들과 함께, 우리는 자주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한다. 사실상,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말을 몰랐거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아모스를 멈추게 한 후 그에게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라고 물었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아모스가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오해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선지자들이 이해력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그들이 말한 것을 대부분 이해했다. 예를 들어, 단 12:8 에서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단 12:8) 나는 들었지만 깨달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의 말뜻을 분별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 그는 주님께 계속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했다.

(단 12:8) 나의 주님, 이 일들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알다시피, 다니엘은 자기가 듣고 쓴 것을 이해했다. 그는 어휘도 알고, 문법도 알았다. 결국 이것은 그의 말이었다. 그러나 그가 모든 것을 이해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이와 아주 흡사하게 벰전 1:11 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해했지만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해 준다. 여기서 베드로는 옛적 선지자들이 “. . .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지시하시고 있던 때와 상황을 알아보려고 애썼다(벰전 1:11).**”라고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때와 상황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몰랐다고 말하였지만, 그는 한 순간도 그들이 그들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우리가 보게 될 것이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은 의식이 아주 뚜렷했고 그들이 말하는 것의 대부분을 이해했다. 그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방식들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체험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정신 상태, 그들의 영감, 그들의 예언의 이해력 등 세 가지 오해만을 다루었다. 우리가 선지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그들이 정신적으로 의식이 분명했고, 그들이 유기적으로 영감받았고, 그들이 말해야 하는 것의

대부분을 이해하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기억한다면 구약의 선지서를 해석하는 작업이란 먼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선지자의 체험에 대한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두 번째 기본적인 해석학적 관점, 곧 선지서의 원래 의미의 중요성을 다루어보자.

IV. 원래의 의미(ORIGINAL MEANING)

종교개혁 시대부터 복음주의자들은 우리가 먼저 단락의 원래 의미를 찾고 나서 그 원래 의미의 권위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한다고 항상 믿어왔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지만, 구약의 선지서에 대해서는 이 기본적인 해석학적 원리를 잊어버린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다른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구약 선지서의 석의에 대한 통속적인 접근들과 올바른 접근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럼 먼저 구약 선지서의 원래 의미를 찾는 데 있어서 매우 널리 알려져 있는 통속적인 접근들을 살펴보자.

A. 통속적 석의(POPULAR EXEGESIS)

오늘날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선의의 기독교인들이 선지자들이 의도했던 원래 의미에 대한 관심을 전혀 두지 않은 채 선지서를 해석하는 것을 본다. 이 통속적인 접근들은 적어도 두 가지 방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한편으로 그것들은 개체적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것들은 무역사적이다.

1. 개체적(個體的 Atomistic)

통속적 해석이 개체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기독교인들이 선지서를 느슨하게 연결된 예언들의 모음으로 읽는 것은 매우 전형적이다. 선지서의 큰 부분들을 주의 깊게 통독하는 대신, 우리는 대개 이목을 끄는 문구나 어떤 특별한 단어에 집중하는 것에 만족한다. 때때로 두 세 구절이 고려의 대상이 되지만, 고작 그 정도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읽을 때 생각하는 큰 문맥이다.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이런 개체적인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 무역사적(無歷史的 Ahistorical)

슬픈 현상이지만,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은 또한 선지서의 역사적 맥락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인간 저자에 초점을 맞추지도 않고, 구약 선지서의 원래의 독자들의 상황과 필요도 고려하지 않는다.

그 대신 선지서들은 의미로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통처럼 취급된다. 우리는 이 통들을 이미 가득 채우고 있는 원래 의미를 찾지 않는다.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시대의 사건들을 붓으로써 우리 자신의 의미를 제공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피고 선지서의 빈 통들을 현재의 역사적 사건들로 채우려고 한다.

나는 유럽의 한 멋진 교회에서 가르쳤던 일을 기억한다. 질의 응답 시간에 방의 뒤쪽에 있던 한 사람이 손을 들고 "당신은 체르노빌 재난이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나는 내 통역자를 쳐다보며 "그가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 통역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질문자의 언어에서 "체르노빌"이란 단어는 "쑥"을 의미했고 예레미야 23장에 사용된 "쑥"이란 단어는 종말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이 질문자는 무슨 일을 했는가? 그는 성경에서 한 단어를 발견했고, 그것을 그의 경험 가운데 있는 일과 결부시켰고, 그 결과로 그것을 종말의 징조라고 보았던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그것을 개체적으로 읽을 때, 우리 자신의 생각을 성경 속으로 집어넣으며 읽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구약의 선지서에 우리 자신의 의미를 집어넣으며 읽는 일은 널리 퍼져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자와 독자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개체적으로 구약의 선지서를 읽기 때문이다. 원래의 의미가 무시되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선지서에 집어넣으며 읽는 것 외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B. 바른 석의(PROPER EXEGESIS)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통속적인 접근법들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이 본문들의 원래 의미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많은 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을 다룰 때 사용하는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선지서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선지서의 원래

의미는 문법적-역사적 석의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미를 선지서에 쏟아부어 넣는 것을 막아주는 유일한 답이다.

“문법적-역사적”이란 단어가 암시하듯이 우리는 원래의 의미를 찾기 위해 두 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로, 우리는 선지서의 문법을 살펴야 한다. 이것은 선지서 본문의 문학적 맥락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우리는 원래의 저자와 원래의 독자의 역사적 맥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 문학적 맥락(Literary Context)

이번 강의들을 통해 볼 것이지만, 통속적인 개체적 접근법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저기서 한 두 단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본문의 큰 부분들, 곧 선지서의 구절들과 장들, 더 큰 단락들, 심지어 책 전체를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 7:14 에 나오는 유명한 예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사 7:14)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자주 “처녀”와 “아이”와 같은 핵심 단어들에 주목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들은 그렇게 했을 때 아주 편안함을 느끼며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 7:14 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에 아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이 구절을 바르게 다루기 위해서는 이 몇몇 핵심 단어들을 넘어서 전체 문맥을 고려해야 한다. 이 구절은 이사야 7 장 안에 어떻게 어울리는가? 그것은 이사야서의 이 부분에 어떻게 어울리는가? 그것은 이사야서의 전체 목적과 의미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우리가 이 한 구절을 보다 더 큰 문맥 안에 놓고 뜻을 파악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확신할 수 있다.

2.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

예언의 더 큰 문학적 맥락을 살펴보는 것 외에도, 적절한 석의에는 역사적 맥락에서 예언들을 읽는 것도 포함된다. 우리는 저자와 독자에 관하여 생각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선지서들을 읽을 때 그것들이 영원한 공간에서 떠도는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문법적-역사적 석의는 이 선지서들을

다시 지상에 두도록 요구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누가 이 말들을 썼는가? 언제 그것들이 쓰여졌는가? 누구에게 쓰여진 것인가? 무엇 때문에 이 말들이 기록되었는가?

예를 들어, 사 7:14 을 접근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땅에 당기를 기다리며 하늘에 떠돌아다니는 일군의 단어들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구절을 지상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우리는 이사야가 유다 왕 아하스에게 말했던 것을 묘사하는 구절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야 한다. 무엇 때문에 이사야가 이 말들을 아하스에게 했는가?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고려할 때만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우리는 구약 선지서에 대하여 개체적이고 무역사적인 접근법들을 거부해야 하고, 그 대신 문법적-역사적 석의를 통해 원래의 의미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예언의 원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오늘의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확실한 답을 갖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우리의 혼동을 극복하기 위해 배워야만 하는 두 가지 분야, 곧 선지자의 체험 그리고 원래의 의미의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주의깊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세 번째 분야인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신약의 관점들을 다루어보자.

V. 신약의 관점들(NEW TESTAMENT PERSPECTIVES)

우리가 구약의 선지서에 대한 신약의 관점들을 고려할 때, 많은 문제들이 대두된다. 다음 강의들에서 이 문제들을 더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이 시점에서는 신약의 관점들의 두 가지 측면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선지자들의 권위에 대한 신약의 관점을 다루고, 다음으로 신약이 구약의 선지서를 적용했던 방식들을 다룰 것이다.

A. 권위(AUTHORITY)

예수님과 신약의 사도들은 자주 그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권위를 전적으로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글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의도들도 권위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그것들에 호소했다.

1. 선지서(Prophetic Scriptures)

첫째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은 선지자들의 거룩한 글에 대한 그들의 복종을 시인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성경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에 충실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물론, 그 당시 유대교의 핵심 가르침들 중 하나는 히브리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였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자주 자신의 사역이 구약의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예를 들어, 마 5:17 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 5:17 개역개정)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의 권위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글의 권위도 인정하시며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라. 신약의 모든 저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랐다. 그들은 끊임없이 선지서를 권위있는 성경으로 간주했다.

2. 선지서의 의도들(Prophetic Intentions)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선지서 본문을 사랑했음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들이 선지서의 원래 의도들을 충실히 따랐음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신약의 저자들은 그들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단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제멋대로 자신의 의미를 선지서에 강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선지서의 원래 의미를 찾고 그 굳건한 기반 위에 세우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오늘날 사람들은 아주 보편적으로 신약 저자들이 구약을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주신 권리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아래에 언급할 신약의 두 구절은 신약 저자들이 구약의 예언들의 원래 의미에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잘 보여줄 것이다.

우리는 행 2:29-31 에서 베드로가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들을 통해 선지자들의 의도에 대한 이러한 깊은 헌신을 볼 수 있다. 시편 16 편의 일부를 인용한 후에 베드로는 행 2:29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 2:29-31 개역개정)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베드로가 자신의 기독교적 생각들을 시편 16 편에 집어넣으며 읽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라. 오히려 그는 다윗의 예언적 말을 다윗의 경험 그리고 다윗의 의도에 비추어 해석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예언의 원래의 의미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요 12:39-40 에서 요한은 이사야 6 장의 예언들을 언급했다. 그가 말한 것을 들어보라.

(요 12:39-40 개역개정)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요한은 이사야서로부터 인용한 구절을 예수님의 사역에 적용했다. 그러나 그가 그의 해석을 정당화한 방식을 들어보라. 바로 다음 절인 요 12:41 에서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의 의도에 호소했다.

(요 12:41 개역개정)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은 이사야의 체험 그리고 이사야가 자신의 말이 어떻게 이해되기를 의도했는지에 주의를 집중하였다. 요한은 그 자신의 목적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는 유기적으로 영감된 선지자의 의도에 자신을 복종시키려고 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신약 저자들의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서 본문을 권위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언들의 배후에 있는 원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B. 적용(APPLICATION)

예수님과 신약의 저자들에게 예언의 원래 의미가 중요했을지라도, 그들은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자기 당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극적인 행위에 그 예언 말씀을 적용하는 데 전념했다. 이 적용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발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종류의 기대를 제시했는가? 둘째로, 신약의 저자들은 이러한 기대의 성취를 어떻게 보았는가?

1. 예언의 기대들(Prophetic Expectations)

이번 강의들을 하는 동안 내내 우리는 구약이 미래에 대하여 예언한 소망들과 기대들의 종류들을 묘사할 것이지만, 지금은 신약의 관점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인 측면에서 말할 것이다. 간단히 표현하면, 선지자들은 죄가 세상에 대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았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너무 타락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국외로 추방시키셨다. 그러나 이러한 죄의 끔찍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사태를 올바르게 하실 때를 바라보았다. 이러한 미래는 악인들에게는 궁극적인 심판의 때가 되고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복의 때가 될 것이다. 선지자들은 인간 역사의 이러한 절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온갖 종류의 용어들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그것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그것을 “말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대한 미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개입하셔서 모든 일을 최후의 결말에 이르게 하시는 때가 될 것이다.

2. 예언의 성취들(Prophetic Fulfillments)

신약에는 이러한 구약의 예언적 기대들을 다루는 특별한 방식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소망들이 성취된 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응의 날이 매우 빨리 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들은

인간의 역사를 그 절정에 이르게 할 메시아를 갈망했다. 한 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며 이 예언적 소망들을 성취하신 분으로 받아들였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서의 기독교론적인 이해를 위한 해석학적 중심이 되었다.

예수님 자신도 선지서의 해석이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셨다. 그분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눅 24:25-26 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눅 24:25-26 개역개정)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자신을 구약의 예언들의 성취로 볼 것을 기대하셨다. 이 때문에 다음 절인 눅 24:27 은 이렇게 말한다.

(눅 24:27 개역개정)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가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주목하라.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그분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을 설명하셨다. 이렇듯이 신약의 저자들은 예언의 원래의 기대들의 중요성을 시인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이 예언의 기대들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연관시켰다.

처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소망의 궤적, 즉 기대의 궤적을 남겼다. 큰 심판과 복이 임하는 미래의 때가 오고 있었다. 신약은 그 궤적을 가지고 그 미래를 추적하며, 그리스도의 초림, 오늘의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세상의 종말에서 그 성취를 찾는다.

본 강좌의 강의들을 통해 나중에 볼 것이지만,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의 모든 기대들을 그분의 나라의 (다음과 같은) 세 단계에서 성취하셨다고 설명한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분의 나라의 개시 단계인 이천 년 전의 그분의 지상 사역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셨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역사 전반에 걸쳐 그분의 나라가 지속되는 가운데 구약의 기대들을 계속 성취하고 계신다. 셋째로, 결국 그리스도는 그분이 재림하시어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 모든 예언들의 완전한 성취를 이루실 것이다. 그리스도 사역의 (이와 같은) 세 단계들은 신약의 저자들에게 해석학적 모델을 제공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델을 가지고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그들의 시대에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도 역시 구약의 예언의 기대들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분의 나라의 지속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VI. 결론(CONCLUSION)

이 서론적 강의에서 우리는 구약 선지서의 연구 전반을 안내하는 네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우리는 세 가지 기본적인 해석학적 관점들에 집중함으로써 선지서에 대한 우리의 혼동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는 선지자들의 체험에 대하여 배워야 한다. 우리는 선지서의 원래 의미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선지서에 대한 신약의 관점들을 따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다음 강의들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해석학적 관점들을 더 깊게 탐구할 것이다. 우리는 먼저 선지자의 체험을 살피고, 다음으로 원래 의미의 중요성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신약의 저자들이 구약의 선지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훨씬 더 철저히 탐구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줄 선지서에 대한 관점을 발견할 것이다.